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20 20모닝 A 1부	00 KBS 뉴스광장	0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인천 2014특집 모닝와이드 1~2부
⑦	20 아침경제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20모닝 대한민국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감치>	30 KBC 모닝와이드
⑧	10 20모닝 A 2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4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손연재 특집	10 좋은 아침
⑩	10 시사인사이드	30 건국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50 지구촌 뉴스	25 건국 제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30 인천 2014특집 SBS 뉴스
⑪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10 국군의 날 특집 <아주 특별한 우리들의 병영일기>	15 사랑의 가족 45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재)	15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⑫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재)	00 인천 2014특집 SBS12뉴스 30 건강 클리닉
①	30 뉴스 특급	00 우리말 겨루기(재) 55 TV동화 빨간자전거(재)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총사(재)	3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타국 종합복식 준준결승>	30 피아스토리2
②	40 직언직설	00 여기는 인천 <태권도 준결승 외>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오후와 친구들(재) 55 TV 유치원 콩다콩		00 인천 2014 <태권도, 배구, 축구>
③	55 정용관의 시사병법				
④	55 허종대의 쾌도난마		25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옹가 소나타 30 독?둑! 키즈스쿨	
⑤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여기는 인천 <태권도 결승 외>	30 2014 인천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개인 예선 외>	00 MBC 이브닝 뉴스 3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핸드볼 여 결승 대한민국 vs 일본 농구 남 준결승 대한민국 vs 일본>	30 인천 2014
⑥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⑦	20 웰컴 투 시월드(재)				
⑧	20 관찰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55 비타민		00 인천 2014 특집 SBS 8 뉴스
⑨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05 KBC 8 뉴스 25 인천 2014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생방송 집중토론 50 송 터	00 수목드라마 <아이언맨>	00 뉴스데스크 3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	00 드라마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⑪	0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월별의 이순신	10 가족의 품격 플하우스	4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달콤한 나의 도시
⑫	30 라이벌매치 압도적7(재) ①:4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재)	50 넷워킹기획 문화선택 ①:30 국군의 날 기획 다큐공감(재)	30 2014 인천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①:30 한국인의 법상(재)	①:05 MBC 뉴스 24 25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35 나이트 라인 ①:05 인천2014 하이라이트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14:3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05:40 엄마들이 살아보기(재)	10:10 세계 건문록 아틀라스	14:45 미앤마이로봇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9:30 EBS 뉴스
07:00 시계마을 티키토(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05 어린왕자	19:50 다문화 고부열전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30 정글북	20:40 다크 오늘
07:30 책과 땅(재)	<본디야 동티모르>(재)	15:50 모피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07:45 로보카 폴리(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맹 유지원(재)	<바람과 초월의 땅, 몽골>
08:00 당동맹 유지원	12:10 EBS 초대석	16:20 버블버블 마린	21:30 한국기행 <금강천리>
08:20 뽀롱뽀롱 뽀로로(재)	13:05 지식채널e	16:35 윈더볼츠	21:50 EBS 다크 프라임
08:35 방귀대장 뽀롱이	13:10 부모광장(재)	16:45 Why-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2:45 극한직업
08:50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13:40 내 이름은 펄기	17:00 방귀대장 뽀롱이(재)	23:35 세계 건문록 아틀라스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3:50 뽀뽀뽀뽀 올리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중국 비경 서하객 유람기>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4:00 시계마을 티키토	17:30 로보카 폴리	24:05 지식채널e(재)
09:35 따개비 루	14:15 치료와 친구들	17:45 뽀롱뽀롱 뽀로로	24:10 한국영화선전 <클래식>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한국사>	11:40 박복의 이수로 만나는 경제	07:00 경비지도사 시험대비 강좌	15:50 " (사회4-2)
01:50 " <한국지리>	12:10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수학 I B형>	07:30 천철한 수학 익힘풀이 <6-2>	" (사회5-2)
01:4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13:00 " <국어 B형>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50 " (사회6-2)
02:30 " <영어-듣기>	14:00 " <물리 II>	08:30 전기기사/산업기사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14:50 " <화학 II>	09:10 TV 중학 <국어①②>	<전과목 6-2>
04:10 " <과학>	15:40 " <생명과학 II>	09:50 " <수학 I (해)>	18:00 TV 중학 <영어3-2>
05:00 " <한국사(해)>	16:30 " <지구과학 II>	10:30 " <도덕 I>	18:40 " <수학3-2>
05:50 2013 포스 <수학 II>	17:20 " <사회문화>	11:10 " <국어③④>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06:40 압축탐스런 <생명과학 I>	18:10 " <경제>	11:50 " <수학2(해)>	20:00 EBS 인문학 특강
07:30 2014 포스 <문학 II>	19:00 " <영어>	12:30 등업산공 <역사(해)>	20:50 EBS 기획시리즈
08:2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재)	20:00 EBS-N제 <국어 B형>(재)	13:10 " <역사(해)>	21:40 한국기행
09:10 " <영어-듣기>(재)	21:00 " <수학 B형>(재)	13:50 " <역사(해)>	22:00 등업산공 <역사(해)2>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2:00 인터넷 뉴스 <문학 A형>	14:30 " <사회(해)>	22:40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중급)
10:50 2013 포스 <수학 II>(재)	23:00 " <영어독해연습①-종합편>	15:20 중간학업성취도평가 대비특강 <사회3-2>	23:20 중학 e포스 영문법 3 <사회3-2>
			24:00 백점공략 <수학(3)-과학(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일 (음 9월 8일 乙巳)	
子	36년생 부자연속럽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니라. 48년생 용기가 있어야 한다. 60년생 재난은 무지와 방심에서 비롯되느니라. 72년생 필요 이상의 것은 번거로운 뿐이다. 84년생 소망하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9, 77	午	42년생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54년생 망각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히 클 것이니라. 66년생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후련함이 보인다. 78년생 미진한 것들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머지않아 후회하리라. 행운의 숫자 : 03, 40
丑	37년생 정리에 나가야 할 단계가 되었다. 49년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61년생 과신은 소모적인 행국을 조성할 뿐이다. 73년생 진행한다면 무조건 성사된다. 85년생 대폭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9, 08	未	43년생 끈기 있게 조치일관한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 55년생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다. 67년생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이 보인다. 79년생 혼돈 되지 않도록 체계를 잡아서 처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8, 65
寅	38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를 반갑게 맞이하리라. 50년생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오류가 보인다. 62년생 실제로 접해 보기 전에는 숙단하지 말라. 74년생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겠다. 행운의 숫자 : 47, 20	申	44년생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해답을 얻을 수 있다. 56년생 절실한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씩 해결 되리라. 68년생 상대의 발언에는 다중적 의미가 내포 되어 있다. 80년생 필수 사항을 빠뜨리지 말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97, 26
卯	39년생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51년생 정리를 잘 하면 이로움이 전개 된다. 63년생 의도와 다르게 비취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75년생 바쁜 일상 속에서 귀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5, 48	酉	45년생 기존과 신규 간에 균형과 조화가 절실하다. 57년생 새로운 일의 도모는 불길하니 현실에 충실하자. 69년생 생소하기는 하나 재미는 있을 것이다. 81년생 행운의 찬스는 자신만을 기다려 주지 않느니라. 행운의 숫자 : 29, 59
辰	40년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연히 대처 하자. 52년생 행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느니라. 64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76년생 원대한 시각을 가지고 넓고 멀리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2, 95	戌	46년생 선택하기가 참으로 난감 하겠다. 58년생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70년생 과감하게 결정하고 용기 있게 진행해도 된다. 82년생 길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 있으니 실속을 차려야 할지이다. 행운의 숫자 : 96, 83
巳	41년생 공로를 상대에게 돌린다면 더 빛나리라. 53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관조해 보는 것도 괜찮다. 65년생 핵심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어야겠다. 77년생 빈틈 없는 계획 수립이 성공 여부의 관건이다. 행운의 숫자 : 11, 33	亥	47년생 할 수는 있으나 탄력을 받기에는 시일이 필요하다. 59년생 개별적인 취사가 아니라 포괄적인 함유가 유용하다. 71년생 명분이 확실하다면 제거해도 된다. 83년생 난제가 스스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 4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국민들에게 희망·용기

전할 수 있어 행복하죠”

55년 노래인생 윤항기, 새 앨범 발표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中)

무대에 조명이 들어오자 흥겨운 드럼과 기타, 키보드 소리가 터져나왔다. 자신을 “신인 가수”라고 지칭한 무대 위 55년차 스타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고 호응을 유도하는 무대 매너도 대단했다.

그룹사운드 ‘키보이스’ 출신 가수 윤항기(71)의 무대는 여전히 흥겨웠다. 그는 마이크를 왼 손을 바퀴가며 험란한 제스처를 취했고, 두 손으로 크게 하트를 그리며 관객의 환호를 끌어냈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의 예음콘서바토리에서 열린 데뷔 55주년 기념 앨범 발매 쇼케이스에서 윤항기는 “노래 부를 힘이 없어지기 전에 팬들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를 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앨범 발표가) 진짜 행복하다”면서 “‘나이 칠십이 넘어 무슨 신곡을 내냐’라고 나약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나이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사람들에게 주고자 다시 나왔다”고 강조했다. 윤항기가 데뷔 55주년을 맞아 발표한 골든 앨범에는 신곡 ‘걱정을 말아요’와 ‘여러분’, ‘장미빛 스카프’를 비롯한 그의 대표곡 등 모두 13곡이 수록됐다.

‘걱정을 말아요’는 윤항기가 작곡하고 아내 정경진이 작사한 노래로 신나는 멜로디와 박자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는 내용의 가사를 실었다.

그는 “누구나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국민 응원가를 만들고자 했다. 쉬운 곡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어렵더라”면서 “우리나라에 힘든 일이 많은데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라고 소개했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윤복희의 오빠이기도 한 윤항기는 1959년 작곡가 김희갑이 악단장으로 있던 에이원소를 통해 데뷔해 1960년 해방대 군악대를 거쳐 1964년 키보이스를 결성했다. ‘한국의 비틀스’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키보이스는 그해 7월 독집 앨범 ‘그녀 입술은 달콤해’를 발표했는데, 이 앨범이 국내 그룹사운드의 첫 음반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60년대 키보이스에 이어 1970년대부터 키브라더스 활동과 솔로 활동을 통해 ‘장미빛 스카프’, ‘별이 빛나는 밤에’, ‘나는 어떡하랴구’, ‘해변으로 가요’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겼



‘소녀시대’ 8명으로 … 제시카 탈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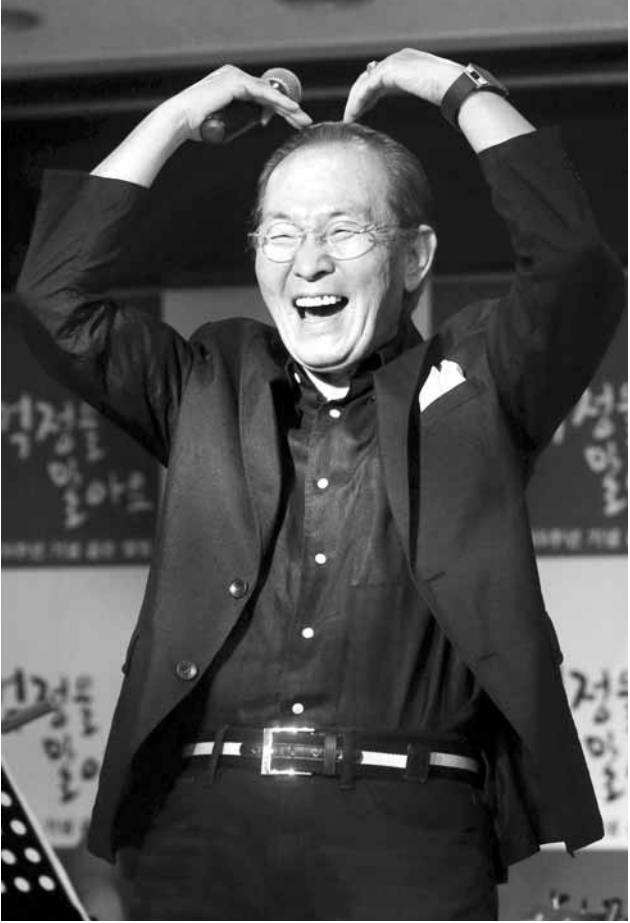
제시카 “갑작스런 통보 당혹” … SM“패션 사업 관련 갈등 있었다”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제시카(본명 정수연·25·사진)가 그룹에서 탈퇴한다. 이에 따라 소녀시대는 2007년 데뷔 이래 처음으로 멤버 구성에 변화를 맞게 됐다.

올해 초부터 멤버들의 잇단 열애 소식으로 위기론이 대두된 그룹은 급기야 멤버 탈퇴까지 겪게 돼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특히 제시카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주장에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제시카는 자신의 웨이보(중국 SNS)에 “다가오는 공식 스케줄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었으나 회사와 (다른 멤버) 8명으로부터 ‘오늘부로 너는 더 이상 소녀시대의 멤버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저는 소녀시대 활동을 우선시하며 적극적으로 전념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로 이런 통보를 받아서 매우



다. 그는 그러나 1986년 아시안게임 때 앨범을 낸 것을 마지막으로 1987년부터 신학을 공부했고 1990년 목사 안수를 받아 예음예술종합신학교 총장 및 예음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올해를 끝으로 목회자에서 은퇴한다.

그는 “55주년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았다. 스스로 생각에도 대단한 면이 있다”면서 “힘이 떨어져 더 쇠잔해지기 전에 새 음반을 내고 팬을 찾아뵙는 것이 큰 꿈이었다”고 돌아봤다.

이날 행사에는 김희갑, 태진아, 자니리, 서수남, 서유석, 김국환, 유현상, 김홍타, 최백호 등 한국 연예계를 품미한 그의 친구들과 선후배 스타들이 출출동했다.

윤항기의 활동을 돕고 있는 태진아는 “선배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 오랫동안 가요계를 떠나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선배의 활동이 내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항기는 향후 전곡을 순회하는 55주년 기념 콘서트도 할 예정이다. 쇼케이스 중반 윤복희가 불러 크게 히트한 자신의 노래 ‘여러분’을 직접 부르던 그는 간주에서 이런 바람을 밝혔다. “사실 제가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서로 돕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 도우며 살면 좋겠습니다.”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은 이날 오후 ‘제시카의 패션 관련 사업’을 갈등의 직접적인 이유로 꼽으면서 그의 탈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SM은 “올해 봄 제시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앞으로 한 장의 앨범활동을 끝으로 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왔다”면서 “이후 당사와 소녀시대 멤버들은 그룹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SM은 이어 “하지만 최근 소녀시대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및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시카가 패션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저히 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SM은 “이에 당사는 8인 체제의 소녀시대 활동을 당초보다 앞당기는 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발표 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카 본인의 시각으로 글이 게재됐다”면서 “8인 체제의 소녀시대 및 제시카의 개인 활동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매니지먼트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예슬, 3년만의 복귀 … SBS ‘미녀의 탄생’

주상욱과 유쾌한 로맨스 … 내달 방영

배우 한예슬(33)이 SBS TV 새 주말극 ‘미녀의 탄생’으로 3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다고 소속사 키이스트가 29일 밝혔다. 한예슬은 ‘미녀의 탄생’에서 물불 안 가리는 전형적인 아줌마였다가 섹시한 미녀로 변신하는 주인공 사라를 연기한다. 드라마는 성형과 다이어트로 인생이 달라지는 사라의 삶을 로맨틱 코미디로 그린다.

사라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남자 주인공 한태희 역에는 앞서 주상욱(36)이 캐스팅됐다. 한태희는 거대 그룹의 상속자다.



‘미녀의 탄생’은 ‘끝없는 사랑’ 후속으로 오는 11월 방송된다. /연합뉴스